

선두권 보인다, '천적' 넘어라

KIA 절대열세 롯데·삼성과 6연전...윤석민 선봉 출전

① 프로야구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낙적 롯데, 삼성을 상대로 실력 테스트를 받는다. 에이스 윤석민이 험난한 6연전의 선봉에 선다.

KIA는 지난주 두산·넥센과의 승부에서 2승2패를 거두며 아쉬운 대로 5할 승률을 지켰다. 삼성이 디펜딩 챔피언의 본색을 발휘하며 1위 자리로 올라선 가운데 롯데가 0.5 게임차로 그 뒤를 쫓고 있다. SK는 7연패의 늪에 빠지며 KIA와 공동 5위가 됐다. 1위와 5위는 4.5게임차.

5할 승률에 걸쳐 있는 KIA는 주중 2위 롯데와의 홈 3연전을 벌인 뒤, 주말 대구로 건너가 1위 삼성과 맞대결을 벌인다. 선두권 두 팀의 대결, 삼대전에서도 절대 열세다.

KIA는 6월9일 최희섭의 대타 훌런을 앞세워 4-3 승리를 거두며 지난 시즌부터 이어

져 온 롯데전 12연패의 사슬을 간신히 끊었다. 올 시즌 전적은 1승5패(방어율 5.82), 삼성과의 대결에서도 3승1무7패(방어율 5.79)로 부진했다.

잘 나가는 두 팀을 상대로 KIA는 진짜 실력을 테스트 받게 된다. 에이스 윤석민의 어깨가 무겁다.

윤석민은 10일 안방에서 사도스키와의 맞대결을 벌인다. 한 달만의 리턴매치다.

윤석민은 지난달 10일 2년 만의 사직전 선발로 나서 사도스키를 만났다. 3회 신본기의 볼넷과 함께 흔들린 윤석민은 김주찬에게 훌런을 얻어맞는 등 3이닝 5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폐전투수를 봤다. 반면 사도스키는 타선의 화끈한 지원과 함께 올 시즌 KIA전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갔었다.

사직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민은 이후 팔꿈치 통증과 함께 엔트리에서 말소되며 제종전의 시간을 가졌다. 1군 복귀 후 세 번째 등판이다. LG와 두산을 상대로 2연

승을 달리며 위밍업을 한 윤석민은 부담스러운 롯데를 만난다.

지난 두산전에서 윤석민은 8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팀의 1-0 승리를 이끌어냈다. 밸런스를 잡으면서 읽어버렸던 스피드가 살아났다.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질 수 있게 되면서 초반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8이닝을 막아냈다.

윤석민이 롯데 강타선을 잠재우고 사도스키와의 리턴매치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과의 대결에서는 좌투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한이·이승우·최형우의 삼성 좌타자 리인은 KIA의 천적이다.

최형우의 시즌 타율은 0.226에 불과하지만 KIA전 타율은 0.333까지 뛰어오른다. 9타점 9득점도 만들었다. 박한이도 KIA전 타율이 0.389에 이르고, 이승엽은 훌런 3개를 뽑아내며 0.341의 타율과 9타점 15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직 감독들

10구단 창단 촉구

프로야구 전직 감독들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향해 제10구단 창단 작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웅(71·전 삼성), 김성근(70·전 SK), 김인식(65·전 한화) 전 감독을 비롯한 14명의 야구계 원로들은 9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일구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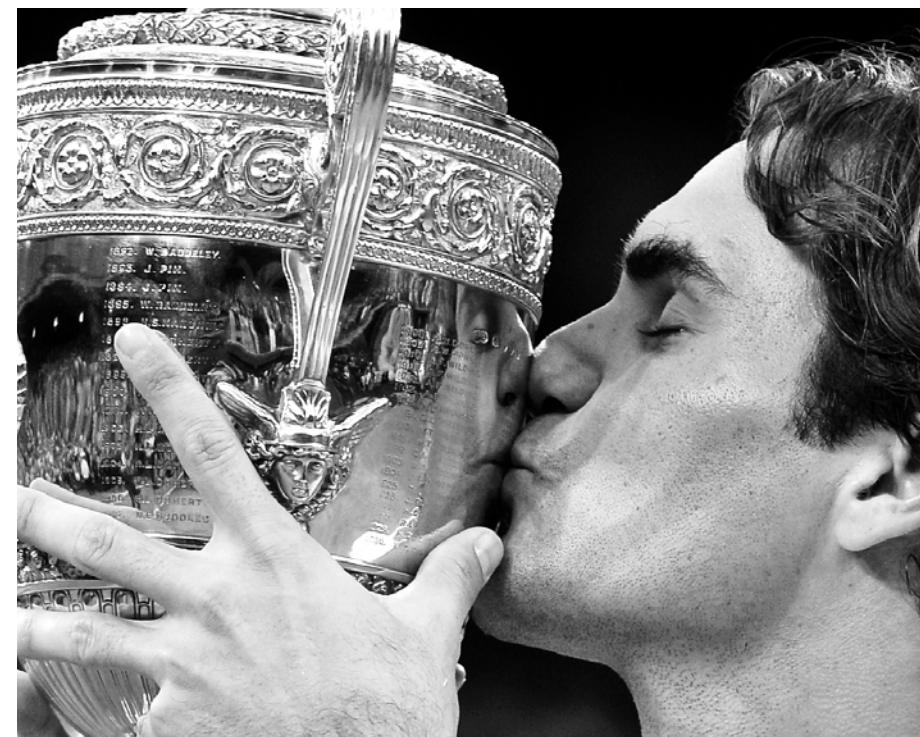
이들은 ▲10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10구단 창단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성실히 선수협회 대화에 나설 것을 KBO에 주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월 제9구단 NC 다이노스가 창단하면서 야구인과 야구팬들은 10구단 체제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꼈다"며 "그러나 10구단 창단은 제대로 된 논의도 해 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창단을 반대하는 논리인 '시기상조론'에 대해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도 다들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으나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야구인들의 노력이 팬의 마음을 움직여 '시기상조'를 '시기적절'로 만들었다"고 반박하며 "제10구단 창단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지금 기회를 놓치면 '시기상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 당시 선수 대표로 성명서를 냈던 윤동균 전 감독이 발표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 김성한(54) 전 감독 등 11명의 지도자들이 뜻을 함께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황제 페더러 워블던 입맞춤

9일(한국시각) 워블던 테니스대회 남자단식에서 3년 만에 패권을 틸환한 '테니스 황제'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우승컵에 입맞춤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스타전 롯데 사상 첫 전포지션 짹쓸이

KIA 안치홍·이범호·이용규 뽐혀...선수협 "10구단 창단 승인땐 거부 철회"

롯데가 역대 최초로 전 포지션에서 올스타를 배출했다.

오는 21일 대구전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별들의 별'이 팬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17년1475표로 역대 최다투표수(종전기록 162만367표)를 간신히 이번 투표에서 롯데 포수 강민호가 89만272표를 획득하며 최다 득표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이 대호가 기록했던 83만708표를 넘어서 역대 최다 투표수다.

이스턴리그의 롯데는 2루수 조성환의 막판 뒤집기로 올스타전 역대 최초로 전 포지

션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 감독 추천 선수 각 12명의 명단을 오는 11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베스트 10이 가려졌지만 10구단 창단을 놓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올스타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향후 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선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KBO의 임시 이사회를 앞두고 10구단 창단을 위한 청탁이나 협상을 하거나 대타로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

웨스턴리그에 속한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이용규(외야수)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이후 4년 연속 올스타를 끌고, 한국무대 복귀와 함께 올스타에 선정됐던 이범호도 2년 연속 베스트 10이 됐다. 이용규도 3년 연속 베스트 10에 합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위에 웨스턴 리그의 선동렬 감독과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이 선정하

는 올스타를 짹쓸이 했다. 2003년 삼성과 2008년 롯데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를 제외하고 9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적이 있다.